

조이스의 「죽은자들」: 가브리엘의 에피파니와 자아 발달*

김 상 욱

I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색인을 만든다면 그 색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용어 중 하나는 에피파니(epiphany)이다. 에피파니란 말은 “신성한 존재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카톨릭 종교 의식중 하나인 성체의식(the Eucharist ritual)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기도 하다. 예컨대 카톨릭 성체의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의 현현으로 빚대어지는 것이 에피파니라 불린다. 원래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깊은 이러한 에피파니란 말에 조이스는 자신의 예술적 안목이 투영된 자신만의 독특한 의미를 덧붙여 이를 하나의 창작기법으로 발전시켰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이스는 에피파니에 대해 “[사람들이 범하는] 부지불식중의 말실수, 판단착오, 제스처가 내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면을 발견하는 것 *ironical observations of slips, and little errors and gestures*”(Stanislaus Joyce 124)으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인지되는 순간 “사람들은

* 이 연구결과물은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을 드러낸다”고 적었다.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에서 조이스는 스티븐(Stephen Dedalus)의 말을 빌려 에피파니를 “불현듯이 드러나는 본질 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211)이라고 일컫고 있다. 또는 같은 소설에서 조이스는 다른 방식으로 에피파니를 설명하고 있다—“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곧 본질이다 [Claritas is quidditas]. 이는 내가 에피파니라 일컫는 것으로 [에피파니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순간에] 그것은 외피를 벗고 그것의 속살, 그것의 본질을 갑작스레 우리에게 나타낸다”(213). 스타니슬로스(Stanislaus Joyce)는 조이스식 작풍의 밑바탕이야말로 초창기 집필활동 시절 조이스가 천착했던 에피파니였음을 증언하고 있다(Stanislaus 125). 이러한 증언이 시사하는 것은 에피파니가 더블린식의 삶에 대한 조이스의 통찰을 담아내는데 있어 하나의 예술적 수단이었다는 것이다.¹⁾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의 제목을 「죽은자들」이라고 붙인 것은 에피파니와 관련이 있다. 『더블린 사람들』을 집필하기 직전 조이스는 「입센의 신극」(“Ibsen’s New Drama”)이라는 제하의 평론에서 입센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When We Dead Awaken)란 작품을 논평했다. 두 작품의 제목에서 연상되듯 입센의 극과 조이스의 단편 간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있다. 두 작품에서 작중 주인공인 루벡(Rubek)과 가브리엘(Gabriel)은 각각 조각가와 작가로서 모두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루벡과 가브리엘이 아내와의 정서적 소통을 단

1) 에피파니가 조이스의 전 작품을 아우르는 조이스적 모더니즘 기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쟁이 있었다. 194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이스 비평가들은 조이스적 에피파니의 본질을 “계시 revelation”라고 적었다. 예컨대 헨드리(Irene Hendry)는 작중인물들의 “개인적 실체 individual essence”가 그들이 연관된 사건이나 그들을 연상시키는 사물을 통해 독자에게 드러나는 방식을 조이스적 에피파니라 일컬었다. 모더니즘 기법으로서 에피파니의 조이스적 중용이라는 헨드리의 평가는 월즐(Florence L. Walzl)과 스콜즈(Robert Scholes) 간 찬반양론의 에피파니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월즐은 조이스의 에피파니를 하나의 예술적 기법으로서 “대개의 경우 개인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본질적 방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정신적 혹은 도덕적 의미가 갑작스레 드러나는 것 a sudden revelation of spiritual or moral meaning, usually as to the essential being of a person or thing”(Scholes and Walzl 153)이라고 보았다. 반면 스콜즈는 에피파니를 조이스의 예술적 기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작품의 주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특히 작중인물인 스티븐(Stephen Dedalus)의 미학이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절시키는 자기 편의주의 지향의 일방적 성향으로 인해 아내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두 작품의 동질성이다. 조이스의 단편에서 아이버즈(Miss Ivors)가 가브리엘의 대륙적 색채²⁾가 강한 문학적 취향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가브리엘의 나르시즘적 자기애(self-serving)에 일격을 가했다면 입센의 극에서 아이린(Irene)은 루베키 지향하는 예술에서 그의 이기주의적 허위성을 들춰내어 결과적으로 루베키 남성주의적 독단성에 타격을 가한다.

입센의 극에서 루베키는 조각가로서 오로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과의 경쟁에 몰입한다. 루베키에게 예술적 창조가 없는 삶은 “개으르고 공허한 삶”(406)일 뿐이다. 루베키는 자신의 아내 마야(Maya)를 자신의 예술적 성취라는 자기도취적 명제에 희생시킨다. 루베키의 아일랜드형 등가물인 가브리엘도 아내의 정서적 욕구(emotional demands)를 채워줄 수 없는 자기중심적 인물이다. 자기 세계에 대한 가브리엘의 집착의 강도는 아이버즈가 자신을 반민족주의자라고 낙인찍은 것에 대한 신경과민적 반추에서 나타난다. 가브리엘의 이러한 자기 기분 본위의 정서적 일방성이야말로 그레타(Gretta)가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골웨이(Galway) 방문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을 때 이를 그가 교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루베키는 아이린을 모델로 자신이 직접 “부활일 The Day of the Resurrection”로 명명한 조각상을 빚어 조각가로서 최고의 찬사를 얻는다. 루베키에게 있어 마야는 조각상이 완성된 후 홀연히 사라진 자신의 모델 아이린의 공백을 메워줄 임시 “방편”(405)일 뿐이다. 그러므로 입센의 극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는 루베키와 마야 부부간 불화가 극의 주요 테마로 설정되어 있다. 조각가로서 루베키의 예술적 완결성에 대한 자기도취적 집착이야말로 마야를 소외시키는 요인이다. 마야의 루베키에 대한 힐난의 중심에는 루베키의 자기본위적 편향이 있다-“당신[루베키]은 타인과 어울릴 줄을 몰라, 알아 당신.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당신일에만 관심있지 You are not a sociable man, [Maya says,] you know that, Rubek. You like to be by yourself and occupy yourself with your own affairs”(403).

루베키와 마야 간 파국적 부부관계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평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의 주제로 부부불화를 꼽은 것에 반해 조이스는 루베키의 에피파니를 그 극의 중심요소로 설정했다는 점

2) 가브리엘은 예술의 탈정치성을 지향한다. 에켄대 가브리엘의 문학관은 예술을 민족을 넘어 범민족적, 범문화적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비정치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다.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에 대한 조이스의 찬사는 루베키 에피파니의 순간에 이르러 자신에 대한 객관적 자기진단을 통해 자신의 허상을 깨고 실상을 증득하여 새로운 자아를 정립하는 자기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있다.

Thinking deeper and deeper on himself and on his former attitude towards this woman[Irene], it strikes him yet more forcibly that there are great gulfs set between his art and his life, and that even in his art his skill and genius are far from perfect. (*Critical Writings* 54)

루베키는 이 여자[아이린]에 대해 과거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성찰하게 되면서 자신의 예술과 자신의 삶 사이에는 아주 큰 괴리가 있고 자신의 예술에 있어서조차도 [예술적] 기교와 천재성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현 듯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이스에게 있어 루베키의 “부활일” 조각상은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통찰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철학”(Critical Essays 66)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조이스적 에피파니와 일맥상통한다. “부활일” 조각상에 대한 조이스적 통찰은 자아의 발달이다. 말하자면 조이스에게 자아는 항구불변의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고 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다는 것으로 일종의 자아에 대한 진화적 관점이다.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의 순간은 더 높은 단계의 지적 사유를 통해 삶의 아이러니 즉 “삶의 모순과 상충 the cross-purposes and contradictions of life”(Critical Essays 66)이 해소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조이스에게 있어서 자아는 늘 아이러니한 조건에 처할 운명을 갖고 있으며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자아로 발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가 출현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죽음의 상태에서 새 삶을 얻는 부활에 비견된다.

[...] the facts that he is devoted to his art and that he has attained to a degree of mastery in it—mastery of hand linked with limitation of thought—tell us that there may be lying dormant in him a capacity for greater life, which may be exercised when he, a dead man, shall have risen from among the dead.

(*Critical Writings* 66).

그가[루백이] 자신의 예술에 헌신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삶과 예술을 반성적으로 재평가한 후에] 자신의 예술에서 어떤 경지에 [...] 이르렀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죽음을 떨치고 부활할 때[처럼] 발휘될 더 큰 삶으로 나아갈 능력이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조이스의 에피파니적 자아 발달관은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적 자아관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은 인간의 지적발달을 개체의 환경적응이라는 생물학적 원칙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의 대전제는 생물개체가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변화에 적응하듯 성장기의 아동도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에 맞춰 자신의 인지구조, 즉 스키마(schema)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성인의 스키마는 내적 정신구조(internal mental structure) 즉 주체와 외적 자극(대상)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아동의 스키마로부터 진화해 나간다. “지적발달은 [스키마의] 구성과 재구성의 끊임없는 과정이다”(Wadsworth 16).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등장인물들의 에피파니는 인지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일종의 지적 성장이다. 조이스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에피파니는 ‘자아의 타자에 대한 애착 the self’s attachment to others’과 ‘자아의 타자로부터의 분리 the self’s differentiation from others’라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져온 피아제식 자아 발달이다.

이 논문은 조이스의 루백으로서 가브리엘의 에피파니를 자아의 자기발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레타와의 관계에서 가브리엘이 종국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에피파니의 순간은 ‘나’를 객관화시켜 ‘나’를 타자화하는 순간이다. 가브리엘은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레타가 자신의 판타지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이러한 허상의 꼭두각시였음을 자각하게 된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자기비판적 단계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은 자신을 객관적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인지발달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가브리엘의 지적 성숙을 촉발시키는 것은 부부 간 역학관계가 가져오는 정서적 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정서적 스트레스야말로 가브리엘이 자기도취에 의해 익숙한 타자로 인식한 그레타를 낯선 타자로 자각하는 단계로 변화되어 가는 과

정을 견인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가브리엘의 에피파니는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자아의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II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자아의 재발견이 불가능한 등장인물들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자신 혹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믿고 있는 하나의 자기중심적 자아상에 함몰되어 있는 자기 기만적인 등장인물들이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을 이루는 어떤 단편들은 “나”에 대한 객관적 조망을 통해 주관적으로 바라본 “나”와 객관적으로 바라본 “나” 사이의 불유쾌한 괴리 즉 아이러니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혹은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노출되는 인물들이다. 예컨대 「애러비」(“Araby”)의 일인칭 주인공 화자는 애러비란 장터에 대한 자신의 나르시즘적 판타지에 스스로 기만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애처로운 사연」(“A Painful Case”)에서 독신남 더피(Mr. Duffy)는 한때 자신이 가까이 했던 여인 시니코(Mrs. Sinico)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애써 부인하지만 종국에는 극단의 고독에 신음했던 시니코의 절규를 외면한 자신의 냉혹함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어머니」(“A Mother”)에서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자식에 대한 애정을 자식을 통해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려는 것과 동일시하며 자기기만에 빠진다. 이러한 키어니 부인의 자기기만은 종래에는 압제적 자식 사랑에 끝내 반기를 든 그녀의 딸 캐슬린(Kathleen)의 반항에 의해 환멸로 변한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총15개의 단편 중 마지막 단편인 「죽은자들」(“The Dead”)이 더블린의 매력인 “현대 hospitality”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Letters II 166). 조이스의 말대로 「죽은자들」이 더블린 사람들의 현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확실히 「죽은자들」은 과도하게 밀착된 인간관계가 발생시키는 더블린의 신경과민적 증상을 묘사한 나머지 14개의 단편과 구별된다. 1904년 1월 첫째 주 어느 날 저녁 모칸(the Morkans) 자매는 만찬에 손님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극진히 환대한다. 그리하여 이전의 단편들이 각종 형태의 과도한 사회적, 가족적 밀착관계가 빚어내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결박된 더블린 사람

들의 “마비”를 그려냈다면 「죽은자들」이 묘사하는 더블린식 환대는 음주와 가무,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더블린 사람들의 유쾌한 유희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환대분위기 이면에 여전히 가브리엘과 그레타의 부부관계로 대표되는 더블린식 인간관계의 전형인 정서적 속박(emotional bonds)이 나타난다. 가브리엘의 자기기만은 그레타라는 독립된 개체를 언제든 자신과 정서적 동조(emotional synchronization)를 일으키거나 언제든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존재로 오인하는 데 있다. 가브리엘의 이러한 자기중심적 경향에 위기가 오는 것은 언제든 그레타가 자신과 정서적 동조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반투명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자신이 지배해야 할 그레타의 마음속에 죽은 자인 마이클 퓨어리(Michael Furey)라는 낯선 존재가 선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산 자인 가브리엘의 자아도취적 자기기만이 빚어내는 아이러니이다.

가브리엘의 에피파니는 가족 간 역학관계 특히 부부 간 관계의 산물이다. 피아제는 인간의 성격을 가족 간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 constructed’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했다(71). 그에 따르면 인지발달의 과정은 자아가 환경에 부단히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은 자아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들이다. 따라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모형에서 보자면 ‘성격’이라는 것은 내적 충동(감정, 의지, 본능)과 외적 압력(타자와의 관계) 간 변증법적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개인 간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 현상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모형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정서적 상태 affectivity”³⁾가 지적 발달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에 따르면 인지발달은 각각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활성화된다.

Since structure does not exist without energetics and, reciprocally, since every new structure involves a new form of energetic regulation, a particular sort of cognitive structure will be found in concert with every new type of affective

3) “affectivity”의 우리말 번역은 다양하다. 보통 “정서”로 옮기지만 우리말의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라는 의미를 가진 “정서”라고 옮기게 되면 “affectivity” 원 뜻을 살리기에 부족하다. “affectivity”는 감정(emotion), 기분(feeling), 의지(will), 열정(passion), 충동(driv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regulation. (12)

새로운 [인지]구조는 [그것을 촉발시키는] 에너지 없이는 발생하지 못하고 모든 새로운 [인지]구조는 에너지 제어[새로운 형태의 인지구조를 지배할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상태]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인지구조는 그것을 제어할 정서적 상태의 새로운 유형과 동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일종의 격렬한 감정 상태인 불안감(anxiety)은 개인 상호간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커어(Michael Kerr)와 바우웬(Murray Bowen)도 불안감이 새로운 개인과 개인 간 관계의 창출에 동원되는 에너지임을 밝히고 있다.

An important consequence of anxiety is that it creates pressure on people to adapt to one another in ways that will reduce each other's anxiety. (78)

개인 간 관계에서 불안감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된 개인들은 발생한 불안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안감의 증대한 결과이다.

불안감이 새로운 개인 간 관계를 추동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모체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격렬 상태인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을 들 수 있다. 아동의 분리불안이야말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아이를 새로운 형태의 엄마-아이 간 관계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내적 에너지이다. 이것은 모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고통이자 아이가 이전 단계의 자아로부터 새로운 단계의 자아로 거듭나는 말하자면 자아의 “진화적 탈바꿈 evolutionary transformation”(Kegan 82)이다. 이러한 아이의 분리불안은 아이의 엄마에 대한 정서적 의존의 격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의 분리불안이야말로 아동심리를 넘어 모든 가족구성원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족 불안(family anxiety)의 전형이다. 커어와 바우웬은 가족구성원들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증세의 강도가 가족구성원들 간 정서적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Since anxiety undermines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people automatically act in ways designed to reduce anxiety. The greater the emotional interdependence of a relationship, therefore, the more easily people are threatened, the more anxiety they experience, and the more energy is invested in actions aimed at reducing that anxiety. (74)

불안감은 정서적인 측면의 행복감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줄이려는 행동방식을 자동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 간] 관계의 정서적 상호의존성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심리적 위협감을 느끼기 쉽고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며 더 많은 에너지가 그러한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에 투입된다.

불안감이 낮은 단계의 정서적 성숙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에 타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지발달을 필요로 한다.

「죽은자들」은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편 「두 자매」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David G. Wright)가 주목했던 것처럼 「죽은자들」은 「두 자매」와 연관관계에 있다. 예컨대 「두 자매」의 일라이자(Eliza)와 내니(Nannie)는 미혼녀라는 점에서 가브리엘의 이모인 줄리아(Julia)와 케이트(Kate)를 연상시킨다. 「두 자매」는 일인칭 화자인 소년이 임종을 앞둔 플린 신부(Father Flynn)의 집 바깥을 지나는 것으로 펼쳐진다. 소년은 플린 신부가 누워있는 방 창문에서 비어져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응시하며 죽음이라는 의미가 갖는 공포를 경험한다. 「죽은자들」은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깊은 상념에 잠긴 가브리엘이 가로등이 밝혀진 눈 내리는 거리를 호텔방안 창문을 통해 응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죽은자들」은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앞부분의 단편들[유년기 시절을 그린 단편들]의 패로디 성격을 띠고 있다”(288).

「두 자매」를 포함한 유년기 시절을 그린 단편들과 「죽은자들」 간 이러한 서사상 열개의 유사성 이외에 가브리엘의 신경과민적 성격이야말로 그를 유년기 단편에 등장하는 소심한 기질의 소년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요인이다.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편들은 더블린에서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구성하는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다. 기질적 성향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년기 단편들⁴⁾

4)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에서 일인칭 주인공-화자는 또래 아이들에게 너무 학구적

에 등장하는 내향적 성향의 학구적 소년들은 청소년기 단편들에 나타나는 소심하고 고독한 청춘들⁵⁾과 일맥상통하고 이들과 장년기의 가브리엘은 신경과민인 내향적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유사관계가 있다. 이러한 요소가 『더블린 사람들』을 유년기에서 장년기에 이르는 더블린 시민의 성장 단계별 축약으로 읽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예컨대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유년기 소년들의 이야기는 「죽은자들」이 생략하고 있는 장년기 가브리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죽은자들」은 사실상 가브리엘의 내향적 기질이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그린 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죽은자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가브리엘 내면의 예민한 반응을 통해 그가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브리엘이 나타내는 불안증세의 첫 번째 징후는 그가 릴리(Lily)에게 던진 애정 어린 인사말—“한참 물이 올랐을 때이니 어느 날 결혼한다는 말이 들리겠는 걸 I suppose we'll be going to your wedding one of these fine days”(178)—에 대한 그녀의 뜻밖의 가시돋친 응대—“남자들이란 모두 어쩔 수 없이 알랑거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니까요 The men that is now is only all palaver”—가 가브리엘의 내면에 일으킨 여운이 긴 파장이다—“가브리엘은 여전히 릴리의 가시돋친 갑작스런 응대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179). 릴리의 신랄한 말대꾸에 대한 가브리엘의 반추는 저녁 만찬 후 자신의 간단한 인사말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또 다른 불안증세로 이어진다.

He was undecided about the lines from Robert Browning for he feared they would be above the heads of his hearers. [...] They would think that he was

인 모범생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한편 우연히 만난 동성애자 노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독서량을 과시하는 줄 알면서도 그에게 문학에 대한 자신의 안목이 저열한 것으로 비칠까봐 전전긍긍한다. 「어러비」(“Araby”)의 1인칭 주인공-화자도 이웃집 망간(Mangan) 누님에 대한 짝사랑을 자신만의 판타지에서 고뇌하는 내향적 인물이다.

- 5)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 도란(Doran)은 유년기 단편에 나오는 일인칭 주인공-화자의 청년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도란은 독신생활을 즐기지만 그의 투철한 종교적 신앙심에서 나오는 지나친 도덕적 결벽성(scrupulosity)은 그에게 신경과민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두 건달」(“Two Gallants”)에서 레너한(Lenchan)은 보도의 한 가운데를 점령하고 걷는 자신의 친구 콜리(Corley)와 달리 항상 보도의 가장자리로 걷는다는 점에서 그의 소심한 내성적 성격의 일단이 그의 걸음걸이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airing his superior education. He would fail with them just as he had failed with the girl in the pantry. (179)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읊는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브리엘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브리엘의 이러한 걱정은 초대된 손님들의 수준에 비해 브라우닝의 시가 너무 높지 않을까하는 그의 불안 때문이었다. [...] 초대받은 손님들은 가브리엘이 자신의 우월한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브리엘은 광에 있던 릴리에게 냉대를 당했던 것처럼 초대된 손님들에게서도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브리엘은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점에서 매우 자의식적이다. 특히 아이버즈가 가브리엘의 범민족주의적 작풍을 반민족적 행태라고 질타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는 가브리엘을 정서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아이버즈가 가브리엘을 “친영국주의자 a West Briton”(188)로 낙인찍는 것은 그의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그의 신경과민적 강박증상을 증폭시킨다. 가브리엘이 “좌불안석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것”(189)과 “그의 벌겍게 달아오른” 이마는 모두 그의 강박증이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이다.

가브리엘의 고도 불안증(the high-level anxiety)은 결혼 전 그의 모친과의 ‘정서적 밀착 emotional attachment’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징후이다. 가브리엘 모친의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요구는 「어떤 어머니」(“A Mother”)의 키어니 부인(Mrs. Kearney), 「선거사무실에서의 파넬 추모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헨치(Henchy)가 부모의 야망에 자식을 희생시킨 것의 사례로 언급한 빅토리아 여왕,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 부인(Mrs. Mooney), 그리고 「이블린」(“Eveline”)의 이블린의 죽은 모친과 통한다. 여느 더블린 모친들처럼 가브리엘의 모친도 자식들에게 자신의 자기중심적 양육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면서 자식들을 자신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대리자로 삼는다. 가브리엘 모친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적 관리는 분명 자식들의 성공에 기여한다—“모친 덕분에 콘스탄틴은 벨브리건에서 수석 큐레이터가 되었고 모친 덕분에 가브리엘 자신도 왕립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186-87). 모성애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가브리엘 모친의 이러한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정서적 밀착은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매우 예민하고 자기세계에 빠진 인간을

만들어 낸다.

가브리엘에게 있어서 모컨 이모집에 걸린 자신의 모친 초상화는 그레타를 머느리로 인정하길 거부했던 자신의 모친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A shadow passed over his face as he remembered her sullen opposition to his marriage. Some slighting phrases she had used still rankled in his memory; she had once spoken of Greta as being country cute and that was not true of Greta at all [...]. (187)

자신과 그레타와의 결혼에 무언의 시위를 벌이며 반대했던 자신의 모친을 회상하며 가브리엘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모친이 쏟아내었던 그레타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들이 그의 뇌리에 생생했다. 그의 모친은 한때 그레타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시골뜨기 나부랭이라 했는데 그레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가브리엘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죽은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사무치는 한 resentment”(187)이 남아 있다. 가브리엘의 죽은 모친이 여전히 ‘사무치는 한’으로 그의 마음 한 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친의 가브리엘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밀착의 잔영이다. 가브리엘에게 있어서 이는 가브리엘이 자신의 모친에게 정서적으로 의탁된 관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가브리엘 모친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간섭은 가브리엘이 정서적 독립체(emotionally independent person)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후유증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서적 밀착의 후유증이야말로 가브리엘의 지나친 자의식과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이른바 자기 독립적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타인의 감정에 의존적인 성향을 발현시키는 요인이다.

커어(Kerr)와 바우웬(Bowen)은 타인의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클수록 불안 증세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자아와 타자 간 분리가 희박하다는 것[타인의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들 간 역할과 상호작용이 훨씬 더 관계성[타인의 감정]에 의존한다는, 이른바 [정서의] 의존성이야말로 불안증세의 지속을 야기한다 The increased undifferentiation means that the functioning of family members is more relationship-dependent, a dependence that spawns chronic anxiety”(115-16)고 적었다. 가브리엘과 그레타 간 부부관계의

패턴이 보여주는 것은 가브리엘이 자신의 모친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정서적 의존관계를 그레타와의 관계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브리엘은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가족에게 투사한다는 점에서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찬들러(Chandler)나 「상대자」(“Counterparts”)의 파링톤(Farrington)과 닮은꼴이다. 가브리엘이 애런 섬(Aran Isles) 방문에 대한 그레타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 “가고 싶으면 가, 가브리엘은 차갑게 말했다”(191) - 은 자신을 애런 섬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문화를 버린 친영주의자라고 몰아세웠던 아이버즈에 대한 분노가 그레타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의 그레타에 대한 냉대는 만찬 내내 그녀를 소외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다씨(Bartell D’Arcy)가 구슬프게 부른 “오그림의 연인 The Lass of Aughrim”이란 노래 가락이 그레타로 하여금 그녀의 처녀시절 구애자였던 마이클 퓨어리에 대해 더욱 애뜻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그녀의 감상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가브리엘은 가족 간 관계에서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생각을 지식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모친과 닮은꼴이다.

He’s really an awful bother, what with green shades for Tom’s eyes at night and making him do the dumb-bells, and forcing Eva to eat the stirabout. The poor child! And she simply hates the sight of it! . . . O, but you’ll never guess what he makes me wear now! (180)

그 사람[가브리엘]은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밤에는 탐의 눈을 보호한답시고 남포동에 녹색 갓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그 아이에게 아령을 들게 하질 않나, 이바에게는 옥수수죽을 먹이질 않나. 불쌍한 아이! 옥수수죽만 봐도 진저릴 처요. . . . 그가 내게 뭘 입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죽은자들」의 결말은 가브리엘이 자신과 그레타 간 부부관계의 패턴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른바 자아발달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호텔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가브리엘은 갑자기 “부란된 성욕 a keen pang of lust”(215)을 느낀다. 호텔 방안에 두 사람만 있게 되자 가브리엘은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석상처럼 서있었던 낯선 모습의 그레타를 반추하게 된다. 가브리엘에게 있어서 낯선 존재로 인식된 그레타는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아이버즈와 릴리만큼이나 생경하고 두려운 존재이다. 자신의 모친에 대한 가브리엘의 정서적 의존만큼이나 가브리엘은 그레타의 기분에 정서적으로 좌우

되고 있다. 예컨대 가브리엘은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레타의 상념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지만—“가브리엘은 그레타의 불가사의한 기분을 속속들이 알아내고 싶었다 He longed to be master of her strange mood”(217)—자신의 소심함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모친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었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브리엘의 이러한 소심성은 “그레타가 자진해서 다가와 주길 바라는”(217) 피동적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브리엘이 불현듯 맞닥뜨린 “아이러니”(219)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레타의 마음속에 자신이 아닌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브리엘과 그레타 간 동상이몽의 이러한 아이러니는 가브리엘이 그레타와 “함께한 둘 만의 시간”을 추억하는 사이 그레타는 자신의 처녀적 연인 마이클 푸어리를 회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브리엘이 마주한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야말로 그가 자신을 타자화하여 자신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다. 가브리엘에게 자신은 이제 “이모들 비위나 맞추는 우스꽝스런 존재 a ludicrous figure, acting as a pennyboy for his aunts” 혹은 “남을 배려해준다며 전전긍긍하는 감상주의자 a nervous well-meaning sentimentalist”로 비취진다. 더 나아가 가브리엘은 자신과 그레타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의 테두리 바깥 타자의 입장에서 재조망한다.

It hardly pained him now to think poor a part he, her husband, had played in her life. He watched her while she slept as though he and she had never lived together as man and wife. (222)

그레타의 삶에서 남편으로서 그가 차지했던 변변치 못한 역할을 떠올리는 것은 가브리엘에게 이제 하나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가브리엘은 마치 자신과 그레타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듯이 잠든 그레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브리엘의 에피파니는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와 객관적 현실에서 경험된 자아 사이의 간극인 존재의 아이러니한 양상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자각의 순간과 동시에 가브리엘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정은 그가 과민하게 기능했던 부부관계의 패턴에서 벗어나 그 패턴을 사유하고 관조한 결과이다.

III

조이스 자신이 『더블린 사람들』의 집필 의도를 더블린 사람들의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를 성장 단계별로 그려내는 것이었다고 자신의 출판업자 리처즈(Grant Richards)에게 밝혔듯이(Letters II, 134)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15개의 단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단편 간 유기성의 요체는 유년기에서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더블린식 인간관계의 과도한 정서적 밀착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신경과민적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이스의 본격 성장소설이자 『더블린 사람들』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더불어 『더블린 사람들』을 느슨한 형태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면에서 「죽은자들」의 가브리엘은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단편에 등장하는 일인칭 화자이자 주인공들의 성년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피아제가 그의 인지발달론에서 밝혔듯이 유아기로부터 성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지적, 정서적 발달은 성장하면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경험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꿔가며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처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국면을 경험하는 이른바 에피파니는 바로 이러한 피아제식 인지발달의 전형이다.

입센 극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의 작중 주인공 루백의 조이스적 전유인 가브리엘의 에피파니는 정서와 인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정서와 인지의 상호보완적 관계야말로 자아와 환경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고도의 정서적 성숙을 향한 더 높은 단계의 인지발달을 견인한다. 가브리엘의 자아 진화는 바로 이러한 인지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가브리엘은 그레타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좀 더 성숙한 인격체로 진화하여 감으로써 그레타와의 관계에서 벗어지는 자아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한다. 그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통해 기존의 부부관계 패턴을 학습하고 아내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인식에 걸맞은 새로운 자아를 구성한다.

(경남대)

인용문헌

- Hendry, Irene. "Joyce's Epiphanies." *The Sewanee Review* 54 (1946): 449-67.
- Ibsen, Henrik. *Last Plays of Henrik Ibsen*. Trans. Arvid Paulson. New York: Bantam, 1962.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59.
- _____.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New York: New Directions. 1963.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1.,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1966; Vols. 2 and 3,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3 vols.
- _____.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1967.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 and Intro.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58.
- Kegan, Robert. *The Evolving Self: Problem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82.
- Kerr, Michael E. and Murray Bowen.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1988.
- Piaget, Jean. *Intelligence and Affectivity: Their Relationship During Child Development*. Trans. and eds. T.A. Brown and C.E. Kaegi. Palo Alto: Annual Reviews, 1981.
- Scholes, Robert. "Joyce and the Epiphany: The Key to the Labyrinth?" *The Sewanee Review* 72 (1964): 65-77.
- Wadsworth, Barry J. *Piaget's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Foundations of Constructivism*. 5th ed. New York: Longman, 1996.
- Scholes, Robert and Florence L. Walzl. "The Epiphanies of Joyce." *PMLA* 82 (1967): 152-54.
- Wright, David G. "Interactive Stories in Dubliners." *Studies in Short Fiction* 32 (1995): 285-93.

Abstract

“The Dead”: Gabriel’s Epiphany and His Evolving Self

Sangwook Kim

In this essay, I elucidate the cognitive-developmental dimension of Gabriel’s epiphany in James Joyce’s short story from *Dubliners*, “The Dead.” Joycean epiphany was once treated as merely Stephen Dedalus’s aesthetic theory in much of *Stephen Hero* and in part of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oyce himself, or via his brother Stanislaus Joyce, said that the epiphany is a literary means to expose his characters to self-contradiction and make them realize truths they are self-deceptively blind to. I reevaluate Gabriel’s changed perception of his wife Gretta—the crux of his epiphany—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process on the level of cognitive science. One of the great findings by Jean Piaget and his neo-Piagetians is that people may change their cognitive structures to adapt to new experience. What is significant in cognitive structural change in this instance is the intellectual leap pushed by emotions and anxiety.

In “The Dead,” Gabriel displays a hypersensitive personality, a sign of his high degree of emotional dependence on others. His anxiety in public life spills over into domestic life, disrupting the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wife. This emotional pressure, pushed to the limit by finding his wife’s distancing from him as she recollects her dead lover Michael Furey, is too great for him to cope. His epiphanic moment comes about when he is forced to choose between the narcissistically self-deluding self and the objectively self-evaluating self once awakened to a new ironic reality—that she has had an existence separate from him and hitherto emotionally and cognitively incomprehensible to him. He finally frees himself from his self-delusive constraints and objectively assesses himself and, in turn, accepts his wife’s individuality as a being of free will, evolving in Piagetian

terms into a more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mature person.

■ Key words : Piaget, *Dubliners*, “The Dead,” Ibsen, cognitive development, epiphany

(피아제, 『더블린 사람들』, 「죽은자들」, 입센, 인지발달, 에피파니)

논문접수: 2011년 11월 22일

논문심사: 2011년 12월 11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19일